

“도덕·철학 빈곤한 정치 지도자는 실정” 역설

方山老의 無影樹 (11)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정념 스님

-스님은 언제, 어디에서 탄허 스님을 만나셨나요?
저는 1979년에 쌍계사에서 행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시 공부를 하는 대학생으로부터 오대산에 가면 팔만대장경에 통달한 도인 같은 스님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서 저는 갑자기 오대산에 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 도인이 바로 탄허 스님이었지요. 그래서 쌍계사를 떠나서 오대산 월정사로 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1979년 말이었습니



정념 스님 (월정사 주지)
동국학원 이사, 중앙승강대 총동문회장 역임

-1980년 가을에는 이른바 10·27법난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렵에 겪은 일과 탄허 스님과의 관련을 회고해 주세요.

저는 계를 받고 제 사형되는 해광·현오 스님과 함께 그해 동안 결제를 해인사 선원에서 하자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산굴에 계신 만화 스님에게 그런 취지를 말씀드렸더니 경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슨 참선 공부냐는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초 약속대로 함께 해인사로 갔는데, 방부 날짜를 잘못 알아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날짜 때문에 입방을 하지 못해서 학산 스님이 계시던 백련암, 월명암, 복천암을 거쳐서 대전 자광사로 갔습니다. 그때 탄허 스님이 그곳에 계셔서 인사를 드렸지요. 자광사에서 복천암에 방부를 들여서 참선 공부를 하기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참선 공부를 하려면 화두(話頭)가 있어야 하기에, 저는 인친 용화사의 송담 스님에게 화두를 받으려 갔어요. 그렇지만 송담 스님은 구산·성철 스님 같은 방장 스님들에게 화두를 받으라고 하면서, 화두를 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자광사로 돌아오면서, 그럴 바에는 탄허 스님에게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탄허 스님에게 “정진을 하러 가는데 화두를 주십시오” 하였지요.

오대산 수도원 수강생은 사부대중 지도계층 인재양성 사회변혁 기대 돈오돈수 비판... 깨쳐도 보임해야 스님의 독특한 서체 전승 선양 필요

을 하지 않고 지내던 곳인데, 월명 스님이 그런 것을 해결하면서 지내니 탄허 스님이 좋아하신 것이지요. 또 탄허 스님의 원력이었던 동양학연구소 같은 것도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신임을 얻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스님(월명)이 탄허 스님의 유목과 출판된 신화엄경 상당 부분을 빼내는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탄허 스님이 크게 상심했어요. 그때 인근 대전지법에 있었던 김동진 판사가 관여해서 해결을 하고 그랬죠.

-탄허 스님에게 본격적인 강의를 들은 것인데, 소감이 어떠하셨는지요?

탄허 스님의 강의는 정말 대단했어요. 스님은 정말 말이 없어요. 책은 전혀 보시지 않고, 칠판에 가득 쓰면서 하셨지요. 처음에는 중국의 구유철학부터 시작해서 동양철학의 대강을 설명하셨어요. 그때 스님은 유가, 도가, 묵가, 음양가, 종횡가, 법가, 농가 등등을 대의까지 설명하셨지요. 이렇게 스님은 동양학 전반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교의 대의를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여덟 시간을 하시다가, 피로하시면 안 된다고 해서 네 시간씩 하였습니

-그렇군요. 그러면 복천암에서 수행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서 저는 복천암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대전 자광사로 내려왔습니다. 그 때 자광사에서 두 달 정도, 1980년 말까지 있었어요. 그때 탄허 스님은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광사 거기에 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자광사 주지로 있었던 월명 스님이 탄허 스님의 환심을 사려고 여러 일을 하였어요. 자광사는 신도관리, 집수리 같은 것

-졸업식 이후의 일화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강의를 받은 일부 스님들은 스님의 강의에 환희심을 내서, 강의를 마치자마자 방산굴에 가서 상원사 선원으로 올라가서 참선 정진을 한 일도 있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학담 스님, 시봉을 하였던 환원 스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방산굴에 가서 스님을 찾아 보였지요. 학담 스님과 환원 스님은 그 이전에 같이 선방을 다녀서 친했어

적인 측면도 겸수하였다고 저는 봅니다.

-탄허 스님의 유목은 선필(禪筆)로 부르지요?

그렇지요. 저는 월정사 주지 소임을 보면서 스님의 유목을 오대산문화 차원에서 보존, 전수할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스님의 유목, 글씨체는 독특하고 독창적인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서체, 서법이 담긴 유목은 오대산 전통의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전승, 선양하기 좋은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탄허 스님을 기리는 회초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스님의 서체에 대해서는 서예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독특하고, 살아 숨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또 스님의 서체를 기본·정도로 해서 서예 교본책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요. 이것은 스님이 살아 생전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한 분이 공군 장군이었던

-스님은 정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스님의 발언, 관심 등을 유의해서 살피면 정치적 관심이 많아요. 그것은 유년시절에 유교를 배운 것, 그리고 부친이 보천교라는 민족종교의 간부이었던 것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스님은 왕도정치, 제정일치를 많이 피력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맹자도 나오는 것을 활용해서 토지·경제제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정치가 모든 분야, 전반적으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정일치가 동서양에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스님은 지도자의 자질, 자격의 문제로 무척 강조했어요. 정치 지도자는 도덕, 철학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덕, 철학이 빈곤한 지도자는 많은 실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서, 제정이 불일치 될 때에도 많은 문제가 나온다고 봤어요. 스님은 학문을 훈교학을 하셔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을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시고 미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예언을 하셨는데, 이는 미래를 어떻게 열어야 할 것인가와 연결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생활에서도 격식이나 전통성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스님이 세상의 변화를,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과거를 통해서, 과거를 배워서 미래를 전망하려는 것에 관심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스님은 정치를, 경제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큰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1982년 겨울, 특강 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스님은 신교육을 받았다면 진보 지식인이 되었을 것

-그리고 스님은 인재양성을 강조하셨지요?

그렇지요. 스님은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정치를 통해서 구체적인 현실을 바꿔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스님이 직접적인 정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님은 왕사 국사와 같은 위치에 계시고 엘리트,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도의적 인재, 즉 동양학 및 화엄사상을 배운 인재를 양성해서 그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정신문명을 개조하시고, 평화와 이상세계가 깃든 사회를 만들려고 하

셨습니다. 도의적 인재양성을 통해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도의적 인재는 동양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지도자라고 볼 수 있지요. 스님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

-스님의 그런 꿈, 이상이 구현되지 않았던 것이 아쉽군요.

현해 스님께서 1992년에 월정사 주지를 맡으셨습니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1권 **전생투시론**

지금까지는 전생(前生)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론이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개인의 사주를 토대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생에 어디에 살았으며, 무엇 이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현생에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영혼투시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최면요법이 절대 아닙니다. 또 빙의가 되었는지, 어떤 조상영가가 지금 고통을 주는 것인지도 알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靑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제1권 345쪽

◆ 책 구입은 서점으로 배포되지 않고 백초율력학당에서만 판매합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041)943-6882 / 010)3813-4443

사차원운명둔갑술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2권 **십자성래점술**

사람의 운명의 길흉을 판단할 때 지금까지는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아서 감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성래점술은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지 않고도 상담자가 묻는 질문의 답을 알 수 있고, 된다 안된다와 하라 하지마라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신 비법을 공개합니다. 인도의 점성술 천궁도와 귀장술의 12신궁으로 만들어진 12궁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면 됩니다.

靑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 제2권 350쪽

화제의 신간!

SET 300,000원



百超律曆學堂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예금주 : 김경석